땅의 기억

조선개국 일등공신의 고대광실

그의 죽음 후 쪼개지고 나눠진 사연은

경복궁 왼쪽 수진방(수송동) 자리 전경. 필자 제공

수송동, 정도전의 집터였던 곳

수진방(壽進坊)은 조선시대에 경복궁 앞을 아우르던 공간이다. 『대동지지 한양경성도』와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세로로는 세종대로와 조계사로, 가로로는 율곡로와 종로 사이의 넓은 공간이었는데 수동과 송현으로 대별됐다. '조선 개국의 총설계사' 삼봉 정도전(1342~1398)은 이 수진방에 대저택을 두었다.

정도전의 집은 수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 이 공간에는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대림빌딩, 이마빌딩, 서울지방국세청, 연합뉴스 건물 등이 있으니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간다. 경복궁 오른편으로 흘렀던 계천(溪川)이 삼봉 저택을 통과했다. 삼봉은 사랑채를 이 계천가에 두었다. 삼봉의 저택은 정조 때에도 자취를 남겼다. 유득공이 『고운당필기』에 수동 풍경을 묘사했다.

"중학당과 직물조달청인 재용감과 말 관리하는 사복시로 변해버린 옛 삼봉의 저택 터에는 큰 버드나무와 큰 홰(회화)나무 대여섯 그루가 있고, 또 네모난 연못이 있는데 온통 연꽃을 심어 놓아 꽃이 몹시 성대하다."

조선 초 수동은 의정부와 육조 거리 옆이고, 궁궐과도 가까워 요지 중의 요지였다. 이런 요지에 정도전이 집을 크게 지을 수 있었던 데는 한양 설계를 주도한 그의 권세가 작용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정도전은 자신이 사는 동네 이름을 '오래 살 수(壽)'를 써 '수동(壽洞)'이라고 지었지만 '1차 왕자의 난' 때 이곳에서 살해되고 말았다(『연려실기술』). 삼봉은 측근인 남은의 첩이 이웃해 살던 지금의 트윈트리타워 건물 자리에서 왕세자 이방석의 장인 심효생 등과 술잔을 나누다 이방원의 기습을 받아 불귀의 객이 되었다(『태조실록』 7년 8월 26일). 이후 사람들은 '정도전이 수명(壽)을 다했다(盡)'는 의미를 담아 여기를 '수진방(壽盡坊)'이라 바꿔 부르기도 했다(『신증동국여지승람』).

500여 년이 흐른 조선 말 수동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러시아어 통역관을 양성하려는 관립한성아어학교(官立漢城俄語學校)가 수송동에 개교했다(『하재일기』).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러시아 영사관으로 행정 기능을 옮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여서 당시 상황이 반영됐다. 1905년 대한제국 대신이던 이용익이 이 학교 건물을 빌려 보성전문을 개교했다. 고종의 귀비 엄씨도 수동에 명신여학교를 설립했다. 각각 고려대와 숙명여대의 전신이다. 다시 세월이 흘러 마구간이던 사복시 자리에는 이마(利馬) 빌딩, 재용감 터에는 종로구청이 들어섰다.

수동 대부분 차지한
삼봉 정도전의 저택
지금은
종로구청·종로소방서
대림빌딩·이마빌딩
서울지방국세청
연합뉴스 건물…

필자 **안상윤**은 KBS와 SBS에서 언론인으로 일했다. 홍콩·베이징 특파원, 팀장 겸 앵커, 스포츠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친구들은 '구보(仇甫)'라고 부른다.

삼봉은 진보적 개혁 성향이 강했다. 그는 부패한 고려 왕조를 뒤집고 새 왕조를 세우려 했다. 왕이 바른 정치를 펴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도록 하라는 맹자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싶어 했다. 공직에서 물러나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우왕 10년(1384년)에 함경도로 동북면도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가 만난다. 자신이 꿈꾸는 역성혁명에 동참할 인물인지 가늠해 보고자 함이었다.

삼봉은 이성계의 리더십에 매료당한다. 군영 앞에 서 있던 노송에 시를 남겼다. 혁명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아득한 세월에 한 그루 소나무/ 푸른 산 몇만 겹 속에 자랐구나/ 잘 있다가 다른 해에 만나볼 수 있을까(후략)"-『용비어천가』

이성계와 결탁한 삼봉은 이방원과 더불어 온건개혁파의 수장 포은 정몽주를 제거한다. 포은이 내건 '체제 안에서의 개혁'으로는 폐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392년 마침내 새 왕조가 들어서고 삼봉은 태조에 이어 2인자가 돼 조선의 골격을 세웠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법궁 경복궁을 북악 아래 앉혔으며, 그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설치했다. 한양을 빙 두르는 성벽을 쌓고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수도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구획했다. 법궁부터 성문, 궁궐 등 모든 건물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빌려와 『조선경국전』을 지어 인치가 아닌 법치의 틀을 세우려 했다. 불교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유교를 통치이념이자 사회규범으로 삼았다. 국가가 토지를 모두 수용해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급진사상도 가졌다. 요동을 정벌하려는 웅지도 보였다. 삼봉은 신권을 키워 왕권을 견제함으로써 오류를 피하려 했다. 그가 뜻을 다 펴지 못한 채 이방원의 칼을 맞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후 실록에서 정도전은 오랫동안 '간신'으로 표현됐다.

삼봉은 억울했을지 모르겠다. 구보는 진보개혁가 삼봉에게서 몇 가지 모순과 한계를 발견한다.

민본주의를 구현하려 한 삼봉이 왜 그렇게 거대한 저택을 소유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백성을 위하는 개혁가는 사치를 멀리하는 법이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국면에서도 사양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까닭이다. 신분제를 유지한 대목도 민본주의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양인의 수를 늘려나간다(『조선경국전』)'는 생각은 했지만 계급으로 인한 불평등은 계속 불씨로 남았다. 양천제(良賤制)는 백성 대부분을 노비로 둔 채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긴다(『조선경국전』)'는 생각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진보개혁가가 주도하는 역성혁명이 신분제 타파를 이룰 유일한 기회였다는 점을 상정하면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고려 말 귀족의 사전(私田)이 확대되자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전법을 제정함으로써 권문세족의 세력을 꺾은 사례도 있었다(『고려사절요』). 반상(班常)과 적서(嫡庶), 남녀와 노소를 엄격히 구별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선의 성리학적 사회 체제는 많은 이를 절망에 빠뜨렸다. 양반뿐 아니라 왕족까지도 적자가 아니면 차별받았다. 천민·서얼의 한과 분노가 엉켜 민족의 부정적 DNA로 정착한 건 아닐까, 구보는 여긴다.

9대 성종 이후 조선은 내부 모순과 누적된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외침과 내란을 거듭 야기한다. 영·정조 때 잠깐 르네상스 시기를 보낸 것을 제외하면 조선 후기는 혹정과 부패로 얼룩진 아수라장에 다름 아니었다. 외세에 대응하지 못했고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민생은 뒷전에 둔 채 진영을 나눠 권력쟁패를 벌이느라 혈안이 됐던 사대부(士大夫) 정치의 귀결이었다.

삼봉은 꿈꿨던 민본주의를 실현하는 데 모순과 한계를 보였다. 구보는 수송동을 걸으며 '삼봉이 신분제를 깨부수는 혁명적 조치를 단행하고 작은 집에서 검박하게 살았더라면 민초들의 지지세력을 등에 업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랬다면 야심가 이방원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을 터였다.

민본주의 실현 꿈꿨지만 모순과 한계…신분제 깨부수는 혁명적 조치 취하고 작은 집에서 검박하게 살았더라면…

오래 살겠다고 수(壽)를 넣어 수동이라 지었지만, 그곳에서 '불귀의 객'이 되며 수명 다했다(盡) 의미 '수진방(壽盡坊)'이라 부르기도…